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第6卷 第1號 1997年 8月 25日

東醫寶鑑中의 精氣神에 關한 文獻的 考察(II)

鞠淳鎬 · 姜政秀*

Ⅰ. 緖 論

"黃庭經, 有內景之文, 醫書, 亦有內外境象之圖, 道家以淸淨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黃庭經에는 內景之文이 있고 醫書에는 內外 境界의 형상지도가 있으니, 道家는 淸淨修養으로써 人體의 根本을 삼고 醫家는 藥餌와 鍼灸로써 治療로 삼았으니, 이는 道家에서는 그 精微로움을 얻은 것이요 醫家에서는 그 조잡함만 얻은 것이다.)라고 許浚[1]이 그의 《東醫寶鑑 · 集例》에서 밝힌 것으로 볼 때, 本 文獻은 道敎의 哲學的 原理로 《東醫寶鑑》의 醫學思想을 說明하려 하였다.

즉 道란 우선 調攝修養을 말하고 醫란 주로 治療를 가리키니, 前者는 醫學의 根本이요 後者는 醫學의 枝葉이라고 보아, 治病이전에 養生함으로써 壽命延長 및 疾病豫防에 우선하는 道敎의 根本的인 精神에 비해 發病이후에 비로소 疾病을 治療하고 壽命을 보장하려는 醫學은 枝葉的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의 몸이 비록 안으로는 五藏六府, 밖으로는 筋骨肌肉血脈皮膚로 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精 · 氣 · 神이라고 주장하였다. 許浚은 人間의 생명구성요소를 精 · 氣 · 神의 삼요소로 보았으며, 이 삼요소는 각각 따로 分離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依存속에서 氣의 상태로 나타나며, 또한 人體의 兩面인 精神과 肉體는 精과 神의 二元的 요소의 결합이 아닌 氣의 왕래에 의한 順逆의 결과로 변화한 一元的 관점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道家三寶라고 불리워지는 精 · 氣 · 神의 이론을 기초로 人體를 온전히 보존하여 生의 根本을 기른다는 《東醫寶鑑》만의 독창적인 養生思想을 성립하였다.

筆者는 本篇에서 《東醫寶鑑》만의 독특한 精氣神 三寶說을 각각 《黃帝內經》과 道敎的 관점에서 관찰하여 精氣神의 상호관계를 三位一體적 관점에서 有機的인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精은 삶의 원천이며 先後天的 작용이 가능한 人體를 형성하는 단위개념으로서 물질이고 氣는 人身의 생리 활동과 외부 활동을 위한 生命의 원동력이며 營衛를 운행하고 臟腑를 지지하는 無形的 요소로 五行속성에 의하여 推動 · 溫煦 · 固攝 · 防禦 · 氣化作用이 있으며 神은 生命의 精華이며 身體의 精과 氣를 주재하는 人間의 本性이며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形而上學的이고 抽象的인 神의개념을 道敎的 입장에서 形而下學的이고 具體的인개념으로 새로이 전환시켰다.

이렇듯 精氣神 三寶는 生命의 관건으로 精과 氣와 神은 相互作用에 의하여 消長盛衰하여 相互轉化한다.세가지의 구성요소가 渾然一體가 되어야만 이 인체가 일관성있게 정신과 육체를 조화시킬 수 있다.

道敎에서는 身體의 본질을 固定的인 五藏六府의 장이 아니라 흐름으로 인식하여 유동하면서 그치지 않는 氣血의 사이클과 經脈의 네트워크로 제시하여 環中이라고 명명하고있다. 즉 循環하고 轉變하는 다양한 현상의 中心에 있으면서 相對的인 인식만을 하지않고 自然現象을 직관하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本篇에서는 이러한 유기적 체계를 內經과 道敎중의 三焦, 氣化學說, 四海, 氣街, 三丹田, 三關등에 비유하여 精氣神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精

1) 精의 來源 및 作用

精은 《說文解字》에서 "擇米也 從米從靑[2]"이라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1.

2) 殷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p 33.

하니 水穀之氣중에서 가장 精微로운 것을 가려 精이라 稱하였다. 체내 몸에 저장된 精氣로써 臟腑의 精, 水穀의 精微, 氣, 血, 津液 및 大氣와 自然界의 精微로운 물질등을 포괄한다.

이는 廣義로는 後天之精이라 하는데, 五味에서 비롯된 水穀의 精微로움으로부터 化生하여 정제된 부분이 脾胃등의 腐熟運化作用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人體의 五藏를 充養시키고 六腑를 貫注하여 生命活動과 生長發育의 대사를 유지시키는 物質的 기초가 된다. 終局에 先天之精에 生氣를 보충하여 腎에 저장되었다가 五藏六府가 滋養을 필요로 할 때 수포되는 精을 말하는 것이다.

또 狹義의 精은 先天之精이라 하여 인체가 저장한 精氣중에서 生殖기능을 갖는 부분의 물질을 가리키며 生殖의 精이라고도 한다. 腎에 貯藏되었던 精은 人間의 生殖에 관여하여 父母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精이되고 이것은 다시 先天의 精을 기초로 하여 臟腑의 계속적인 養育을 받아 성숙한 다음에야 비로소 人體 生育繁殖의 기본물질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父母의 精이 융합되는 것이 受精이다. 先天之精은 사람마다 달라서 각각 독특한 성장 유형을 決定하고 生長, 發育, 老衰와 깊이 관계되는 先天稟賦로 인식되며, 個人의 發育程度는 精의 변화에 맞추어 진행되며 또한 이것은 男女에 따라 구분이 되니 《素問·上古天眞論》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3].

精은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過程에서 유기체에 생명을 불어 넣는 물질이며 人體 各部의 조직기관을 滋養하고 生長發育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라 할수 있다. 先天之精과 後天之精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相互依存하고 轉化하며 보충함으로써 正常的인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된다. 出生前에는 先天의 精에 의하여 人體가 형성되어, 태초의 기능과 활동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는 後天의 精을 새로이 化生해 내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出生後에는 後天의 精이 培養되어 先天의 精을 끊임없이 滋養, 補充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先天養後天, 後天養先天이라고 한다.

精의 주요작용을 보면 첫째 上記한 바와 같이 生殖之精으로써 생식능력을 갖춘 물질이며 이것은 腎중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人類의 후대를 존속시키는 물질로 《靈樞·本神篇》에 "生之本, 謂之精[4]"이 바로 이것이다. 人體가 생할 때 父母의 精을 이어 받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다시 母體의 氣血에서 營養을 받아 腦髓, 骨格, 筋肉, 皮毛등이 조성되어 차츰 성장해 나가고 人間의 생노병사가 모두 腎精의 생성과 성쇠에 의해 決定된다고 하였다. 둘째 腦髓를 生한다. 《靈樞·海論》에 "腦爲髓之海[5]"라고 하여 頭腦가 精髓의 총집처임을 밝혔고, 《靈樞·經脈篇》에서는 "精盛而腦髓生[6]"이라고 하여 精이 腦髓를 生하는 물질적 기초이 됨을 말하였다. 셋째로는 疾病에 대한 면역성을 말하여 精이 충만하면 衛外가 固密하게 되고 免疫力도 강해져서 邪氣가 쉽사리 침입하지 못하게 되지만 精이 虧虛하면 免疫力이 저하되어 邪氣의 침입이 수월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精은 形成의 單位槪念이다.

2) 精과 腎과의 關係

人體의 精은 주로 腎에 저장되어 있으며 《素問·金匱眞言論》에서는 "夫精者 神之本也[7]"라고 하여 腎精은 生命의 뿌리이고 身體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素問·上古天眞論》에서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 藏之[8]"라 하여 王冰의 注에서는 "五藏六府의 精氣가 넘쳐서 腎臟에 스며들면 腎臟이 받아서 저장한다"고 하였다. 腎이 저장하는 精은 그 來原에 따라서 "先天의 精"과 "臟腑의 精"으로 나눌 수 있으니 함께 腎에 저장되고 兩者는 相互依存하며 相互作用한다.

先天의 精은 부모에게 稟受한 것이니 胎生때부터 모두 갖고 있는 것이며 胚胎 發育을 구성하는 原始 物質이다. 《靈樞·本神篇》에서는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 謂之神[9]"이라 하였다. 즉 腎은 先天의 本인것이다.

藏府之精이란 出生이후에 이루어지며, 섭취된

3) 蔡禹錫: 漢醫學槪論, 羅州, 東新大學校韓醫科大學, 1996, P 88.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局, 1885, P 68.
5) 洪元植: 前揭書, P 174.
6) 洪元植: 前揭書, P 79.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局, 1985, P 20.
8) 洪元植: 前揭書,P 11.
9) 洪元植: 前揭書, P 68.

음식물이 脾胃의 腐熟運化에 의해서 水穀精微로 化하여 五藏六府에 수송되고 臟腑의생리 활동 중에 化生한것으로 後天之精에 해당되며, 身體가 需要하는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腎에 저장되고 臟腑에서 필요로 할 때는 腎이 또 저장한 精氣를 臟腑에 제공함을 가리킨다. 先天의 精은 臟腑의 精을 위해 물질적 기초를 준비하고 다시 臟腑의 精의 부단한 培養에 의존해야만 그 生理 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臟腑의 精의 化生은 또 반드시 先天의 精의 基礎上에서 先天의 精의 能動的인 援助에 의존해야만 한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腎者 作强之官 伎巧出焉[10]"고 하였다. 腎精이 풍부하면 髓海의 神力이 충만해져서 智力이 강장되며 耳目이 총명해지고 動作도 민활하게 되는 것이다. 骨의 생장 발육은 骨髓의 자양에 의존하며 骨髓는 腎의 精氣가 化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腎은 全身의 骨髓를 주관한다[11]"라고 하였다. 腎의 精氣가 충족하여 骨髓가 충만되면 骨格發育이 자연스러워지고 견고 유력해진다. 奇恒之府중 腦髓,骨은 모두 腎에 속한다고 보는데 《素問·五藏生成篇》에서 "腎之合骨也[12]"라고 한것처럼 骨은 腎에 귀속되며 《靈樞·海論》에서 "腦爲髓之海[13]"라고 하여 모든 髓는 다 腦에 속하고 髓는 精에서 생기며 精은 다시 腎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腎이 水液를 주관한다는 것은 腎이 全身의 水液代謝를 주관하여 체내 水液代謝의 平衡을 조절하는 작용을 갖고 있음을 가리킨다. 《素問·逆調論》에 "腎者 水臟 主津液[14]"라 하였다. 腎이 水液을 주관하는 기능은 주로 腎의 精氣가 水液에 대한 命門의 氣化작용에 의한다. 人體의 각 조직의 水液은 반드시 命門의 原氣에 의해서 全身에 산포되어진 후에 쓸모없는 水液은 腎의 腑인 膀胱을 통해 體外로 排出된다.

五藏중 腎臟은 先天의 근본으로써 腎陰, 腎陽이 배속된다. 腎陰은 原陰이라고도 하며 左腎水에 해당하여 이 命門의 腎水는 주로 納氣, 輸血, 包精등의 역할을 관장하며 특히 水臟의 역할을 주관하므로 命門을 封藏之本이라 한다. 腎陽은 原陽이라고도 하며 人體의 陽氣의 근본으로 先天의 眞火의 근원으로써 右命門火에 해당하여 이 命門火는 위로 開竅于耳 아래로 開竅于二陰하는 것은 모두 命門火의 造化에 의한 것이다. 左腎水와 右命門火를 合하여 原氣, 元氣, 腎氣라 한다. 腎氣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러 장부에 溫煦, 氣化, 滋養作用을 하고 있다.

腎은 藏精하여 五行중의 水, 五體중의 骨髓, 五氣중의 寒에 해당되며 人體의 下部에 위치한다.

2. 氣

1) 氣의 來原 및 作用

氣는 《說文解字》에 "饋客之芻米也 從米從气[15]"으로 聚象하니 气字의 뜻은 구름기운이란 글자이다. 구름기운이란 아직 구름으로 엉키기 전의 象을 의미하는 것이고 米의 뜻은 四通八達을 의미하는 것인즉 統一綜合의 의미가 있다. 氣는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氣의 운동변화는 自然界 중 모든 사물을 생성하는 根源이라고 옛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人體를 自然界의 일부분으로 보고 이에 따라 氣의 기본개념이 형성되었다. 氣는 人體內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매우 강한 活力을 갖고 있는 精微로운 요소이며 人體를 구성하고 身體 活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故로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夫人生於地 顯命於天 天地合氣 名之曰人[16]"라고 하였다. 故로 天地사이의 만물도 氣가 화생한 것으로 《素問·天元紀大論》에 보면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 化生萬物矣[17]"라 하였다. 즉 하늘의 陽氣가 내려오고 땅의 陰氣가 올라가서 교합하고 감응하여 萬物을 화생함으로 萬物은 氣를 그 생성의 근원으로 둔다는것이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于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于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18]"이라 하여 氣와 味는 人

10) 洪元植: 前揭書, P 34.

11) 洪元植: 前揭書, P 229.
12) 洪元植: 前揭書, P 39.
13) 洪元植: 前揭書, P 174.
14) 洪元植: 前揭書, P 127.
15) 殷玉裁: 前揭書, P 333.
16) 洪元植: 前揭書, P 97.
17) 洪元植: 前揭書, P 233.

間이 自然界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인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며, 생명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은 氣이거나, 혹은 氣에 의존해서 生成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人間의 생명활동에 있어 중요한 氣의 작용을 보면 淸氣를 받아들이고 濁氣를 내보내는 氣의 출입운동을 통해서 自然界의 기운을 교환함으로써 生命을 유지하고, 水穀을 섭취하며 胃, 腸에서 소화한 후 精微한 물질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한다. 그러한 人體의 장부 경락에 대하여 氣는 각 장부 경락을 구성하고 그 生理 活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며, 또한 그 機能 活動의 개괄이다. 또한 精微한 물질은 다시 營, 衛, 氣, 血, 津液이 되어 全身을 순환한다.

氣의 生成은 先天遺傳과 後天營養 등의 脾胃, 肺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가지 형태의 기운이 渾然一體가 되어 온 몸에 고루 퍼지는 정상적 기운을 생산한다. 첫째는 先天의 原氣로 근본적 기운이며 父母로부터 물려받는 氣를 일컫는다. 이 氣는 부분적으로 個人의 유전적 소인을 決定하며 腎에 저장된다. 즉 人間은 父母의 精氣가 교합, 결취해서 胚胎하므로 태어나면서 이미 父母로부터 받은 先天의 精氣를 소유하게 된다. 이는 氣가 人體가 생장, 발육하고 번식하는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물질적 요소가 됨을 말한다. 둘째는 水穀之氣로 음식이 소화되면서 얻어진다. 섭취한 음식물이 胃에서 소화되어 精華와 糟粕으로 나누어진다. 糟粕은 大腸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되며, 水穀의 精氣는 脾胃를 거쳐 全身에 運化, 輸布되어 氣血의 주요한 來原이 된다. 셋째로는 自然大氣의 淸氣로 공기이며 호흡을 통해 肺에 들어온 대기로부터 추출한 氣이다.[19]

氣의 기능을 보면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는 五行의 기운과도 부합하는 점이 있다.

첫째, 血液代謝,氣血의 循環, 水分代謝에 대한 推動作用으로 五行중의 木氣와 부합한다.

둘째, 正常的인 체온유지를 위한 溫煦作用으로 인체는 正常的인 체온유지를 위해서 氣의 溫煦作用에 의지하여, 스스로 소모됨으로써 노폐물이 되는 동시에 열량을 생산하여 人體를 따뜻하게 한다. 血液과 津液의 순환운동도 氣의 溫燥작용하에서만 正常的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五行중의 火氣와 부합한다.

셋째, 人體의 防禦作用은 氣血, 津液, 臟腑, 經絡 등 다방면을 포괄하는 종합작용으로 五行중의 金氣와 부합한다.

넷째, 固攝作用으로 血, 津液, 精液등의 물질이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용이다. 氣의 固攝作用은 推動作用과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統一性을 유지하고 있다. 固攝作用은 五行중 土氣와 부합한다.

다섯째, 氣化作用으로 氣의 운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종 변화이다. 氣는 스스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데 無形에서 有形으로 전화하거나 유형에서 無形으로 轉化하거나 전혀 다른 종류의 氣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生理的 작용을 일컬어 氣化作用이라 한다. 이는 五行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五行중의 水氣와 부합한다.

氣는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宗氣는 生成에 있어 《靈樞·營衛生會篇》에 이르기를 "上焦出于胃上口 幷咽以上 貫隔 而布胸中[20]"라고 하였고, 循行徑路에 있어서는 《靈樞·五味篇》에 이르기를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于胸中 名曰氣海 上出於肺 循咽喉 故呼卽出 吸卽入[21]"라고 하였으며, 作用에 있어서는 《靈樞·邪客篇》에 이르기를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 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肺 而行呼吸焉[22]"라고 하였다. 宗氣는 肺로 흡입된 外의 淸氣와 脾胃運化의 內的인 水穀精氣가 결합하여 생긴것으로써 胸中에 취집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宗氣라고 한다. 呼吸을 주관하는 肺臟과 血流을 주관하는 心臟의 기능을 推動시키며 外氣와 內氣의 종합체로서 全身을 貫注하는 기의 으뜸이 되는 까닭에 宗氣라고 한 것이다. 또한 宗氣는 營衛를 氣化시켜 각기 기능을 부여하며 그 작용이 後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下焦로 순행하여 下氣海에 畜氣함으로서 腎精을 氣化시켜 先天之氣에도 영향을 미친다.

原氣는 命門의 先天之眞氣로서 元氣라고도 한

18) 洪元植: 前揭書, P 36.

19) 蔡禹錫: 前揭書, P 95.
20) 洪元植: 前揭書, P 119.
21) 洪元植: 前揭書, P 270.
22) 洪元植: 前揭書, P 298.

다.

營氣는 水穀의 精微한 부분이 脾胃에서 흡수된 후 肺에서 宗氣의 작용을 받아 기능화하여 생성된다. 機能化된 營氣는 肺에서 血脈을 따라 경맥내로 전신에 분포하여 순환하면서 人體의 外로는 四肢百骸에 內로는 五藏六府에 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衛氣는 衛는 保衛의 뜻으로 身體를 보위하는 氣라는 뜻이며, 保衛라 함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사를 방어한다는 뜻인 즉, 그 氣는 강해야 하고 엄해야 하며, 과감해야 한다. 또 皮膚 體表를 돌아다니며 氣의 성질이 慓疾滑利하여 병사와 투쟁을 하기 쉽다. 이는 신속하게 운행하고 활동력이 강하며 脈內外를 유주하여 전신에 두루 미친다. 衛氣는 水穀의 거친 부분에서 생성되어 原氣에 의해 기능화 되어지는 것으로 經脈이 미치지 못하는 바깥 부분까지 영양을 공급한다.

즉, 氣는 人身의 生理活動과 外部活動을 위한 생명에너지 이다.

2) 氣와 臟腑, 經絡과의 관계.

人體의 氣에는 위에서 설명한 네가지 氣 이외에 臟腑의 氣와 經絡의 氣가 있다. 이 두 氣는 실제로 모두 전신의 氣의 일부로 原氣가 어떤 臟腑 혹은 經絡에 분포하면 바로 그 臟腑와 經絡의 氣가 된다. 氣가 소재하는 五藏六府와 十二經絡, 奇經八脈이 다르므로 氣의 구성 성분과 기능도 각각 특이하다. 이러한 氣는 각 臟腑, 經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각 臟腑와 經絡의 생리활동을 추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物質的 基礎이다.

臟腑의 氣와 經絡의 氣는 전신의 氣와 마찬가지로 先天의 精氣와 自然界의 大氣 그리고 脾胃가 화생한 水穀精氣가 臟腑의 升降浮沈 및 氣化에 의하여 순환하며 肺·心·脾·胃·腎의 공동작용을 거쳐 化生된 것이고 經脈을 유주하면서 각기 주어진 소임을 다한다.

이를 仙道的 觀點에서 氣와 臟腑, 經絡과 관계를 관찰해 보면 人身의 氣는 北方의 子에서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膀胱에서 民火가 상승하여 氣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體內의 火氣는 心의 君火, 腎의 相火, 膀胱의 民火[23]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느 것이나 命門의 眞火를 그 근원으로 하고 있다. 眞火의 소재지는 小心인, 命門이다. 따라서 生理的 기준에서 말하면 이 膀胱으로 부터의 陽氣의 상승과 그에 이어지는 陽氣의 생성은 命門으로부터의 陽氣의 상승을 모두 하나의 根據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의미 극에 달한 北方의 子에서 생겨난 陽氣는 東方의 寅에 이르러 기화하기 시작한다. 東南方은 陰液이 陽血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방위이다. 腎臟의 水는 이 陽氣와 함께 肝氣에 이끌려 상승하여 東方의 卯에는 肝臟에 도달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는 동안 腎臟의 水는 다하며 陽의 氣만이 肝臟에 가득 찬다. 이 陽氣는 南方의 午에 心臟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玉液이라고 불리우는 腎臟의 水는 肝을 거쳐 心臟에 이르기까지 血로 화한다. 이 血을 陽龍이라 불리는 것이다. 心에서 肺로 이르는 경로는 陽氣가 心臟에서 가장 盛하니, 사람이 입에 津液을 가득 채워 氣管에서 위쪽으로 기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면 陽極生陰하여 陰液으로 변화하면 하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陰液은 본래 상승하지 않으므로 心의 陽氣가 肺를 훈중하는 동안 肺는 心의 陽氣를 陰液으로 화하며 心의 君火와 腎의 相火를 含藏하여 腎으로 下降한다. 肺液과 함께 下降하는 陽氣는 이미 極에 달했던 것이기에 陰液으로 변하면서 腎臟으로 向하는 것이다. 西方의 申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北方의 子에 이르러 陽氣는 腎의 玉液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一身之氣의 循環이 완성된다.

이와같이 仙道에서는 신체의 본질을 固定的인 장이 아니라, 흐름으로 인식하여 固定的인 五藏六府와 달리 유동하며 그치지 않는 氣血의 사이클과 經脈의 네트워크를 제시하여 環中이라 하였으니 순환하고 전변하는 다양한 현상의 바퀴 중심에 있으면서 相對的인 인식을 하지 않고 自然現象을 직관하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4].

또 氣는 臟腑와 經絡등의 전신을 순환하기도 하지만 《靈樞·衛氣篇》에 이르기를 "胸氣有街 腹氣有街 頭氣有街 脛氣有街 古氣在頭者 止之於腦

23) 宋点植編: 醫學輯要, 大田, 文耕出版社, 1991, P 228.

24) 이시다 히데미 著, 李東哲 譯: 氣 흐르는 신체, 서울, 열린책, 1996, P 219.

氣在胸者 止之膺與背腧 氣在腹者 止之背腧 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 氣在脛者 止之於氣街 與承山踝上以下[25]"라고 하여 氣가 부위별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氣街라 하며 三焦도 역시 氣街에 속한다.

脾는 脾主氣하며 五行중의 土, 五體중의 肌肉, 五氣중의 濕에 해당되며 人體의 中部에 위치한다.

3. 神

1) 神의 來原 및 作用

神은 《說文解字》에서 "神天神引出萬物者也 從示從申[26]"이라 취상하니 神은 만물을 인출하는 天神을 가리키며, 天地始生하고 萬物化生하는 變化創造의 주재이며, 人體의 生命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일체의 精神的 활동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神이 非現實的 槪念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人間에게만 존재하는 獨特한 本性이기 때문이다. 神은 人間의 성격과 사고 판단하는 能力의 基盤이며, 또한 神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을 때 눈으로 비쳐 나오는 意識이다. 神의 근원은 精의 근원과 비슷하며 父母는 자식의 神을 창출하고 또 神은 출생후에도 계속해서 物質的으로 滋養된다. 건강한 사람의 神은 관념을 형성하는 潛在力이며 生命에 대한 本能的 欲求이다. 神의 성격은 활성화시키는 힘으로 陽에 속한다.

神의 개념에는 廣義와 狹義의 구분이 있다. 神은 인체의 생명 활동 및 그의 外在的 表現을 가리킨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 "生物의 생명 근원이 안에 저장된 것을 神機라 하고, 神이 떠나가면 生化의 기능도 정지된다.[27]"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神은 인체 생명활동 기능의 개괄이다. 天地間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정상 표현상태를 가리킨다. 즉 神이란 일체 현상의 原理요 本體인 陰陽의 변화가 오묘하여 相對的으로 재한된 개념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신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체 현상의 변화속에 내재해 있는 本性 또는 主宰를 의미하며, 그러한 神의 물질적 기초는 精氣, 血, 津液이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28]"이라하여 天은 사람에게 五氣를 공급하고 地은 五味를 공급하여 水穀의 氣와 五藏의 氣가 합쳐 津液이 産出되었고 생명활동이 이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先天의 精은 神의 기초이다. 《靈樞·本神篇》에 "故生之來 謂之精 兩精相搏 謂之神[29]"이라 하여 神의 근본은 生命과 같아서 父母雙方의 精氣가 교합되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胚胎가 형성되면 生命의 神도 동시에 육성되고 出生後에는 음식물의 섭취에 의하여 神도 계속 滋養을 받아 사용하여도 소진되지 않는 상태를 항상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後天之氣가 神을 滋養함을 알 수 있으니 그래서 《靈樞·平人絶穀篇》에서는 "故神者水穀之精[30]"이라 하였다.

神의 기능은 思惟 意識 및 肢體活動이 모두 神이 인체에 발휘하는 각종 표현형식이다. 《靈樞·本神篇》에는 精·神·魂·魄·意·智·思·慮·志에 이르는 일련의 精神活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精·神·魂·魄의 출입왕래를 종합한 반응의 器로써의 心이 外部에 자극을 감수하고 意·智·思·慮·志의 思考過程을 거쳐 外界의 사물에 대처함을 기술한 것이다.

즉 神은 生命의 精華로서의 本質이다.

2) 神과 心과의 關係

心이 神을 주관하는 것을 心이 神을 저장한다고도 말한다.

廣義的으로 말하면 神은 人體의 생명활동 및 그 외적 표현을 가리킨다. 心은 人體의 생명활동을 주관하며, 각 장부의 기능활동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五藏六府는 心의 총괄적 지휘 밑에서 통일되고 협조되는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진행한다. 때문에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은 君主의 官으로서 精神意識과 思惟活動이 여기서 나온다[31]"라고 하였다.

狹義的으로 말하면, 神은 사람의 精神·意識·思惟活動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五藏에 귀속되고

25) 洪元植: 前揭書, P 236.

26) 殷玉歧: 前揭書, P 3.
27) 洪元植; 前揭書, P 257.
28) 洪元植: 前揭書, P 36.
29) 洪元植: 前揭書, P 68.
30) 洪元植: 前揭書, P 172.
31) 洪元植: 前揭書, P 34.

이를 心이 주관한다. 《靈樞·本神篇》에 "所以任物者 謂之心[32]"이라 하였다. 이 구절에서 任은 접수받는다는 뜻인데 즉 心이 외적 소식을 접수하여 사유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素問·六節藏象論》에 "心은 生命의 근본이며 神이 있는 곳이다[33]"라고 하였다. 《靈樞·邪客篇》에서도 "心은 五藏六府를 주관하고 精神이 있는 곳이다[34]"라고 하였다. 혈액은 神의 주요한 물질적 기초이다. 《靈樞·營衛生會篇》에 "血者神氣也[35]"라고 하여 心이 神을 주관하는 기능이 血脈을 주관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韓醫學에서는 人間의 情緖를 喜·努·憂·思·悲·恐·驚의 七情으로 分하고 이를 다시 努·喜·思·悲·恐의 五情으로 요약하여 五藏에 배속시켰으며 五藏의 五行的 속성에 의한 相生相剋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臟腑機能의 세력균형의 차질이 情緖의 발현의 경향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情緖는 心에서 통속되며 韓醫學에서의 心이란 생명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과 아울러 精神活動의 주체가 되는 臟器이다. 즉 韓醫學에서의 情緖的 발현의 주체가 되는 心이란 자극을 감수하여 반응하는 氣로써 五神의 활동을 범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人體의 生理病理變化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人體의 생명활동의 정황을 의미하는데 이를 흔히 神氣라 한다[36].

《東醫寶鑑》에서는 道敎의 經典인 《黃庭經》의 영향을 받아 神을 精神作用으로만 보지않고 神靈의 개념으로도 파악하여 人間의 五藏六府의 저마다 神이 있으며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五藏六府뿐만 아니라 人體의 百節에 모두 神이 존재한다. 神에 관하여 許浚은 특히 道敎의 학설을 많이 인용하여 人身에 깃들어 있는 抽象的이며 形而上的인 神의 형태와 작용을 形而下學的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체화 시켜서 실제로 느낄수 있게 하였다.

통상 形과 神은 一體이며 이것은 곧 生命의 중요한 현상이다. 그래서 神形一體라 하여 神形不可分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神과 形은 일각도 분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있는 한 神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人間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肢體로 운동할수 있는 등의 一切의 思惟意識 및 身體 活動등이 모두 존재하는 神의 다양한 표현 형태라고 볼수 있다.

心은 心藏神하며 五行중의 火, 五體중의 血脈, 五氣중의 暑에 해당되며 人體의 上部에 위치한다.

4. 精氣神의 相互關係

1) 精氣神 三寶의 象數學的 理致

精氣神 三寶는 三이라는 象數學的 理致를 담고 있어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韓東錫[37]은 "만일 宇宙의 事物들이 단순히 象만 나타낸다고 하면 象의 可否 判斷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自然의 造化는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自然數와 象이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象數라 하는 바, 數는 象의 의미를 밝혀주며, 또 象의 내용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로 《說文解字》에 "三은 天地人之道也, 二는 地之數也, 一은 惟初太始 道立於一造分天地成萬物[38]" 이라 하였다. 《老子 道德經》에서는 道란 物化하기 前의 氣體요, 一은 宇宙에 충만하여 있는 一氣요, 二는 陰陽二氣요, 三은 陰陽二氣에 沖을 가한 것이다. 形而上學的 世界에 있던 道, 곧 氣가 一氣가 되어 現象界로 나타날 때 二氣로 되고, 또 二氣의 화합으로 沖氣가 생긴다. 이것은 곧 陰陽沖의 三氣로 인하여 萬物을 辨證法的으로 생성한다고 본다[39].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天地의 大數는 一에서 始하여 九에서 終하는데 一은 天, 二는 地, 三은 人이 되며 이로 말미암아 天地人을 三才이다." 라고 한다. 《天符經》에서는 "하나의탄생이 無에서 시작하여 삼분되어 天地人의 위치를 정하게 되므로 결국 三分節한

32) 洪元植: 前揭書, P 68.

33) 洪元植: 前揭書, P 36.

34) 洪元植: 前揭書, P 299.

35) 洪元植: 前揭書, P 120.

36)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共著: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 72.

37)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74, P 134.

38) 殷玉裁: 前揭書, P 9.

39) 王弼注: 老子道德經, 香港, 상무인서관, 1973, P 41.

다.[40]"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三과 天地人 三才의 관계를 설명하여 宇宙만물을 구성하는 세가지 바탕, 즉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대표하여 사람으로서 三才를 삼는다. 이 三才의 道가 지극한 묘용을 갖는다하여 三極이라고도 일컬으며, 易은 이 三才 즉 三極을 근본원리로 한다. 또 하늘에는 太極이 있고 땅에도 太極이 있고 사람에도 太極이 있어 三太極이 된다. 《東醫寶鑑·神篇·神爲一身之主》에서 邵子가 이르기를, "神은 心의 통솔을 받고 氣는 神의 통솔을 받으며, 形은 首의 통솔을 받아서 形氣가 서로 사귀고 神이 그 가운데서 主가 되는것이니 三才의 道이다.[41]"라고 하였다. 이러한 三才說에 의해 精氣神 삼요소가 성립하게 된것이다.

2) 精氣神 三寶와 三丹田, 三關과의 相關性

精氣神 三寶說은 上·中·下·三丹田과 관련이 있어 《東醫寶鑑·神形篇》에서 仙經에 이르기를 "上丹田은 腦에 있어 腦髓가 되고 氣를 저장하는 부위이며, 中丹田은 心臟에 있어 絳宮이 되고 神을 저장하는 부위이며, 下丹田은 在下三寸에 있어 精을 藏하는 부위이다.[42]"라고 하였다.

또 三寶說은 등에 있는 三關과 관련이 있어 上關은 腦의 뒷부분에 있는 관문을 玉枕關이라고 하고, 中關은 夾脊에 있는 관문을 轆轤關이라고하며, 下關은 水火之際에 있는 관문을 尾閭關이라고 하여 內丹術에 있어서 氣를 下丹田에 집중하고서 任脈, 督脈을도는 경로를 타는데 대개 첫번째 관문에 해당하니 精氣가 升降往來하는 도로이다.

三丹田과 三關은 上·中·下의 의미에서는 相通하지만 三丹田은 身體前面의 任脈의 裏面에 존재하고 三關은 身體後面의 督脈上에 위치한다. 三丹田과 三關은 水位上에 있어서 上中下가 각기 前後로 相通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內丹術에는 몸을 爐鼎에 비유하여 丹을 製造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장소를 丹田이라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上·中·下丹田으로 나눈다. 보통 단전은 하단전을 말하며 任脈중의 關元, 石門, 氣海, 陰交에 이에 해당한다[43].

上丹田은 腦에 해당하여 髓之海가 되니 또한 頭氣有街이요, 中丹田은 膻中에 해당하여 氣之海가 되고 胸氣有街요, 下丹田은 衝脈에 유사하며 十二經之海가되고 腹氣有街가된다[44].

內丹術은 精을 이겨서 만드는 것이므로 우선 下丹田에 呼吸과 神을 집중해 丹을 만들고, 그 丹은 氣로 변해 督脈을 거쳐 위로 올라가 上丹田에 이르고 이어서 任脈을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氣는 精으로서 그 곳에 쌓이게 된다. 下丹田은 男子에게는 精宮이요. 女子에게는 胞宮이어서 任脈과 督脈과 衝脈이 모두 會陰에서 起하는 데 《奇經八脈考》에서 李時珍이 이르기를 "督脈起於會陰 循背而行於身之後... 任脈起於會陰 循腹而行於身之前... 衝脈起於會陰 夾臍而行 直衝於上[45]"라고 하였다. 督脈은 身後의 陽을 주관하여 陽脈之總督이고 任衝脈은 身前의 陰을 주관하여 각기 陰脈之海와 十二經之海이다. 督脈과 任衝脈은 人體의 南北에 해당된다. 故로 下丹田은 精氣神의 根源處이며 精氣와 全身의 經脈의 根源이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중추적 역활을 다한다.

泥丸, 絳宮 等에 각각 精, 氣, 神이 있다고 적혀있다. 즉, 天谷泥丸은 藏神의 腑, 膺谷絳宮은 臟氣의 腑, 영곡關元은 藏精의 腑라 하며 上, 中, 下丹田에 精, 氣, 神이 대응하고 있다.

上丹田의 명칭에는 泥丸, 乾頂, 天谷, 內院이라 하고, 中丹田은 絳宮, 黃堂, 土府, 玄竅라고 하며, 下丹田은 關元, 氣海, 神爐, 天樞, 土釜라는 別稱을 갖고 있다.

3) 精氣神 三寶와 三焦와의 相關性

三焦는 精氣神 三寶와 같이 上焦·中焦·下焦를 합하여 三焦라 하며 上中下 三要所로 구성되어 있다. 三焦는 一焦로 命門에 근원을 두고 心包와 더불어 相火를 운행하여 人身에 運化, 腐熟, 傳導, 排泄등의 水液代謝와 氣化등을 담당하고 있다. 上焦의 氣는 中焦의 그 근원이 있고 中焦의 化生도 下焦의 협동 작용을 요하는 것이니 上·中·下焦가 각기 그 부위의 機能을 달리 하지만 그들 상호

40) 黃武淵: 한의학에 있어서 수리와 음양론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논문.

41) 許浚: 前揭書, P 48.

42) 許浚: 前揭書, P 9.

43) 吉元昭治著 도광순譯: 道敎와 不老長壽醫學, 서울, 열린책, 1992. ; P 367.

44) 이시다 히데미 著 이동철 譯: 前揭書, P 209.

45) 李時珍: 奇經八脈考, 대만, 大学書局, P 1.

간에는 有機的인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三焦는 분포에 있어서 《靈樞·衛氣篇》의 氣街와 유사하여 신체내부에 모두 네군데가 있다. 이는 經脈의 운행 자체는 아니지만 기가는 신체내의 頭部, 胸部, 腹部, 脛部등에 있는 공간을 말한다. 氣街라는 命名은 氣가 모이거나 운행하거나 하는 거리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機能에 있어서 《靈樞·海論》에 이르기를 "胃者 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里 衝脈者爲十二經之海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膻中者 爲氣之海 其輸上在於柱骨之上下 前在於人迎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46]"라 하였다. 이는 胃·衝脈·膻中·腦등의 四海가 三焦의 機能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의 운행경로는 三焦와 별도의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焦는 膲, 燋를 뜻하는 것으로 태운다는 뜻이고 根源을 뜻하는 것으로 즉 一元之氣를 말한다. 이는 三焦의 氣化作用을 의미하며 氣化作用은 命門에 根本을 두고 있으므로 命門火가 三焦의 기화작용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三焦를 元氣之別使라고도 한다.

命門은 經絡으로 傳化하지 않아서 非正臟이다. 命門이란 生命의 門, 生命의 原이란 의미로 人身原氣의 根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원지이며 上中下 三焦氣化의 動力에 해당되며 人體의 내분비 및 생식 기능의 본체이다.

三焦는 非正腑로 天氣所生인 傳化之府에 속하며 크게 全身의 機能을 순행한다는 獨大의 腑이고 臟腑가 상합하게 되면 三焦가 남게되어 外府, 孤府라고 하니, 人體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하여 臟腑의 機能作用, 氣血의 輸布, 營衛의 流走, 原氣運行의 통로, 氣의 升降開閉등과 같은 인체내의 氣機의 운행변화를 동양적 사유로 氣化라 표현하여 三焦가 담당하는 生理的 機能을 서술하고 있다.

三焦는 《難經 31難》에 이르기를,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下膈 在胃上口 主納而不出 其治在膻中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者 中焦者 在爲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傍 下焦者 當勝脫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納 以傳導也 其治在臍下一寸 苦名三焦 其府在氣街[47]"라고 하여 三焦의 위치와 기능과 치료점을 상술하였다.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부위에 따라 上焦의 범위는 舌下에서 胃의 上口인 賁門까지 胸部를 말하며 心肺兩臟을 포괄한다. 中焦의 범위는 胃의 上口인 賁門에서 胃의 下口인 幽門까지 上腹部를 말하며 脾胃兩臟을 포괄한다. 下焦의 범위는 胃의 下口인 幽門에서 二陰까지 下腹部를 말하며 肝腎, 大小腸, 膀胱 等의 臟器를 포괄한다. 현상에 따라 上焦는 霧露가 水分을 全面에 散布하는 것과 같이 陽氣를 全身에 分布시켜 皮膚와 分肉間을 溫和하게된다. 인체의 호흡을 주관하는 肺와 혈액순환기능을 주관하는 心을 榮衛한다. 中焦는 溫이며 沈積腐熟함을 설명한다. 水穀을 腐熟시키게 때문에 中焦如溫라 하며 消化腐熟시켜 精化를 흡수하고 營血을 化生하여 中焦가 主化하는 것이다. 下焦는 水液을 引水시켜 清濁을 분별하며 大小便의 通利를 주관하니 瀆과 같다. 傳導排泄하게 하고 不納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48].

三焦는 人體의 上, 中, 下 全身에 분포하여 있으나 그 기운의 운행은 手少陽 相火의 三焦經을 따라 수포되므로 《靈樞·經脈篇》에서는 手少陽 三焦의 經脈은 無名指의 小指에 가까운 쪽의 말단에서 起始하여 上向해서 제 4, 제 5 中手骨의 중간으로 나와서 手背를 연하여 手關節外側에 이르고 前腕의 橈骨과 尺骨 사이를 지나 위로 肘의 尖端을 통과해서 上腕外側을 連하여 肩部에 분포된다. 手太陽 小腸經과 秉風穴에서 교회하고 督脈과는 大椎穴에서 교회한다. 足少陽 膽經의 후면에서 足少陽 膽經과 肩井穴에서 교회하고 鎖骨 上窩로 진입하여 兩乳의 중앙에 분포된다. 脈氣는 분산하여 心包와 연관되며 하향하여 橫膈膜을 통과하여 上焦, 中焦, 下焦에 속한다. 그 分枝는 膻中 部位에서 분출하여 鎖骨上窩로 淺出하여 다시 위로 項에 달하게 된다[49].

이러한 三焦經의 流走를 호흡인 宗氣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命門에서 올라오는 원기가 三焦經을 통하여 신체에 골고루 미치며, 督脈, 任脈, 衝脈에

46) 洪元植: 前揭書, P 236.

47) 秦越人: 難經譯釋, 대만, 昭人出版社, P 121.

48) 洪元植: 前揭書, P 120.

49) 洪元植: 前揭書, P 82.

의해 人體前後部로 運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胎息이란 기법에서 道敎가 강조하는 것은 根源的 氣의 運行經路를 體得하는 것이다.

4) 精氣神 三寶와 氣化學說과의 相關性.

精氣神 三寶에서 氣化라하는 것은 精에서 神으로, 神에서 精으로 化하는 作用이다. 精은 人體의 下部에 해당되고 神은 上部에 해당하여 氣는 그사이를 往來하며 相互轉化作用을 하게되니 精氣神의 氣化는 三焦의 氣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韓醫學에서 相火가 氣化의 原動力으로 認識되고 있는데 命門火는 胸의 宗氣에 의해 필요한 動力을 제공받고 宗氣에 의해 肺의 呼吸과 心의 搏動을 鼓舞시키고, 精神狀態를 振作시키며 四肢百骸의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때 생긴 노폐물은 腎의 腑인 膀胱을 통해 배설하고, 人體下部의 陽氣所生인 民火를 조성한다. 宗氣가 氣化과정에서 부단히 소모되어지더라도 水穀의 精微로운 氣와 天氣에 의해 보충된다. 心包와 三焦는 命門을 起點으로하여 水火의 生化發顯을 조정하는 장기로써 命門은 相火之源이요, 三焦, 心包는 相火之用에 해당된다[50].

心包는 三焦와 표리관계로 心의 기능을 대행하여 君主의 臟인 心을 밖으로부터 감싸고 돌면서 心을 호위함과 동시에 心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臣使之官으로 喜樂을 出한다.

三焦는 氣化하면서 相火와 津液을 조절하여 後天의 氣의 생성과 운행을 담당하며, 人體의 모든 장부를 조정하고, 消化, 吸收, 排泄에 관한 모든 기능을 총괄 관장한다. 三焦의 氣化는 활동성이 매우 강하여 相火에 의하여 如環無端히 全身을 운행하고 津液을 조정하니 그 운행방식은 升降出入이다[51].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金木者 生成之終始也[52]"라고 하였다. 心腎이 寒熱을 旣濟하고, 肝肺가 氣血로 相合하니 이는 上下左右의 氣血陰陽이 각 臟腑機能의 相互 協調와 配合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렇듯 氣가 通陽條達됨으로 말미암아 升降出入하는 運動이 平衡狀態를 이루게 되어 正常的인 生理機能을 維持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本草問答》에서 唐宗海[53]는 "人體의 陽氣는 腎과 膀胱의 氣海 가운데서 발미암아 出하여 위로 三焦인 胸中의 網膜을 循行하여 肺에 到達하면 呼吸이 되고 皮毛가 되고 衛氣가 된다"고 하였고, "人體의 元氣는 腎에서 生하여 膀胱의 水가운데서 出한다[54]"고 하여 三焦의 作用과 根源을 밝혔다.

Ⅲ. 結 論

이 考察의 目的은 《東醫寶鑑》에 나타난 道敎의 精氣神 三寶說을 살펴보는데 있다. 許浚은 道는 그 精微로움을 얻고 醫學은 그 조잡함을 얻는다고 卷頭에 明示하고 三寶說을 기초로하여 심원한 醫學의 本質을 闡明하였다.

1. 精은 인체를 형성하는 단위 개념의 물질로 先天의 生殖之精과 後天의 臟腑之精으로 나눌 수 있다. 고로 人體의 구성유지도 가능하지만 다른개체의 형성도 가능한 것이다. 腎이 藏精하면 主骨髓하고, 五行중의 水, 五體중의 骨髓, 五氣중의 寒에 해당되며, 人體의 下部에 위치한다.

2. 氣는 인체와 우주를 구성하며, 營衛를 운행하고, 臟腑를 지지하는 無形的인 요소이다. 先天之元氣, 水穀之氣, 大氣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가지 형태의 氣運이 渾然一體되어 작용하는 생명의 원동력이다. 氣는 三焦, 經絡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三丹田, 三關, 氣街, 四海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五行의 屬性에 의하여 推動, 溫煦, 固澁, 防禦, 氣化작용이 있다.

3. 神은 精과 氣를 주제하는 본성이자 生命의 精華이며, 本質이다. 思惟意識 및 肢體活動이 모두 神이 인체에 발휘하는 표현방식이며, 기능이다. 《東醫寶鑑》에서는 道敎的 입장에서 形而上學的이고, 抽象的인 神의 개념을 形而下學的이고, 具體的인 개념으로 새로이 전환시켰다. 心은 五藏六府의 主宰者이며, 神을 藏하고, 五行중의 火, 五體중의

50) 金完熙·金廣中: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一中社, 1996, P 293.

51) 金完熙·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 75.

52) 洪元植: 前揭書, P 233.

53) 唐宗海: 本草問答, 慶州, 東國大學校原典硏究會, P 24..

54) 唐宗海: 本草問答, 慶州, 東國大學校原典硏究會, P 88..

血脈, 五氣중의 暑에 해당되며, 人體의 上部에 위치한다.

4. 精과 氣와 神은 相火의 작용에 의하여 消長盛衰하며, 相互轉化한다. 세가지 구성요소가 三位一體로 작용하여, 人體가 일관성있게 精神과 肉體를 조화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人體의 精氣神은 생명의 관건이다. 精氣神의 생성은 水穀之精氣와 五藏六府의 정상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겨나고, 五藏六府의 기능과 人身四骸의 활동 또한 精氣神의 작용에 의지함으로써 先後天이 유지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5. 丹田과 三關은 人體의 前後로 배치되어 上中下에 걸쳐 분포상응하는데, 上에는 腦가 있어 氣를 저장하고, 中에는 心이 있어 神을 저장하고, 下에는 精을 장하는 부위이다. 道敎에서는 三丹田과 三關을 精氣神이 생성하고, 전달되고, 발휘되고, 저장되는 부위나 통로로 인식하고있음을 알수있다.

6. 三焦는 人身의 上中下에 폭넓게 분포하여 五藏六府와 經絡에 津液과 相火의 유통을 담당하여 人體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臟腑의 기능작용, 氣血의 수포, 營衛의 유주, 原氣運行의 통로, 氣의 昇降開閉등과 같은 人體內의 氣機運行變化를 담당한다. 上焦의 기운은 中焦에 그 근원이 있고, 中焦의 化生도 下焦의 協助를 요하는 것이니, 上中下가 각기 그 부위의 명칭과 맡은 기능이 다르지만 그들 相互間에 有機的인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氣化는 精氣神이 相互轉化하여 생겨난 作用으로 三焦의 氣化作用에 해당된다. 氣化作用은 相火之源인 命門火에서 비롯하여 宗氣의 긴밀한 협조하에 心包와 三焦가 相火之用에 해당되어 水火의 生化發顧을 조정하는 작용이다. 氣化의 作用에 의해 心腎이 寒熱로 相交하고, 肝肺가 氣血로 相合하여 臟腑의 昇降出入운동을 조정하여 正常的인 人體의 생리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參考文獻

1. 權學澈 : 東醫寶鑑을 通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2. 許津 :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對한 硏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1986.

3. 蔣沂南 : 精神發現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1988.

4. 金廣中 : 內經에 나타난 神의 意味, 慶山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1994.

5. 金廣中 : 東醫學에 나타난 人體生理現象에 관한 考察, 慶山大學校 韓醫學科, 1983.

6. 洪元植 : 韓醫學에서 보는 精神과 肉體,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7, 1993.

7. 李秉書 : 韓醫學과 道敎의 關係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論文集 韓醫學篇 第一卷 第一號.

8. 李鎭洙 : 東醫寶鑑에 보이는 養生思想, 漢陽大學校 體育學科, 圓光韓醫學 第二卷 第一號.

9. 黃武淵 : 韓醫學에 있어서 數理와 陰陽論의 關係.

10. 尹祥熙 : 五神의 認識 및 內容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論文集 韓醫學편 第三卷 第二號.

11.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2.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74.

13. 王弼注 : 老子道德經, 香港, 商務印書館, 1973.

14. 王琦외 4人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15. 金碩鎭 : 周易講解, 서울, 大有學堂, 1993.

16. 周易, 서울, 保景文化社, 1984.

17. 李相殷監修 :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5.

18. 李梴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出版社, 1983.

19. 蔡禹錫 : 韓醫學槪論, 羅州,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1996.

20.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室 共著 :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3.

21. 宋点植編 : 醫學輯要, 大田, 文耕出版社, 1991.

22. 金碩鎭 : 周易과 世界, 東新出版社, 1988.

23. 吉元昭治著, 도광순譯 : 佛敎와 不老長壽醫學, 서울, 열린책, 1992.

24.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5. 許浚 : 國譯增補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26. 周楣聲 : 黃庭經醫疏, 서울, 一中社, 1991.
27. 段玉裁 : 說文解字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28.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局, 1985.
2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局, 1985.
30. 秦越人 : 難經譯釋, 臺灣, 昭人出版社.
31. 이시다 히데미著/이동철 譯 : 氣 흐르는 신체, 서울, 열린책, 1996.
32. 唐宗海 : 本草問答, 慶州, 東國大學校原典研究會.
33. 金完熙·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34. 李時珍 : 奇經八脈考, 臺灣, 大孚書局.
35. 金完熙·金廣中 :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一中社, 1996.